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 무엇을 어떻게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로 출마하며 낸 슬로건이다. 새롭다는 말이 제일 진부하다 해도 어찌겠는가. 기본소득운동과 기본소득당 모두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때다.

지난 8월 기본소득당은 3기 대표단 선거를 치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임대표에, 내가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대표단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만났다. 질문이 쏟아졌다. 어떤 질문은 센 강속구라 글로브를 꺾어도 손이 아팠다.

“총선에서 승리할 전략은 무엇인가?”

“당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바꿀 때인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라앉았는데 이를 돌파할 당의 계획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대표단의 가장 큰 과제는 2024년 4월 총선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조건은 만만하지 않다. 기본소득당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돌파하였지만 지지율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 한편 기본소득당이 창당, 원내진입, 기본소득 입법 추진 등 정치적 성과를 낸 시기는 기본소득의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으나(코로나 초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그 정점이었다), 현재 기본소득의 관심도 지지도 한풀 꺾였다.

이 상황은 기본소득당의 행보 선택 폭을 좁힌다.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 청탁받은 이 글을 기본소득당의 고민과 계획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기본소득운동 전체의 방향을 조망하려면 ‘산 위에’ 올라가야겠으나, ‘산 밑’ 내 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고민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고민을 재료로 집단지성들이 기본소득운동의 진로를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글은 기본소득당 대표단 선거 중 받은 질문에 대표단 후보들이 답변한 내용에 선거 후 내 고민을 덧붙여 구성했다. 세 가지 큰 질문에 답하면서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운동의 방향을 같이 밝혀보겠다.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소득당은 내년 상반기에 총선 준비 티에프를 구성하고 선거 기조, 정책, 연대·연합전술, 출마자 등을 하나씩 확정할 계획이다. 원내정당으로서 목표는 당연히 의회 재진입이다. 그러나 총선 전망이 밝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인지도, 조직력, 기본소득의 대중적 관심 등 어느 것도 낙관적이지 않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이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치열하게 찾을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보다 장기적 시야에서 총선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당은 총선 이후 어떤 정당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기본소득당이 총선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기본소득’ 단일의제정당에서 포괄의제정당으로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총선 이후를 내다보며 당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총선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의 숲을 상상하면서 지금 심을 나무를 정하자는 얘기다.

당명 개정에 관한 질문 역시 총선 계획과 관련한 것이다. 단일의제정당을 드러내는 당명이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다. 나는 ‘기본소득당’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 당명은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내세운 단일의제정당이자 원내정당은 기본소득당이 처음인 만큼 그 이름은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다. 어렵게 형성한 브랜드는 함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당이 포괄의제정당이자 대중정당으로 충분히 성장한 시점에 당명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그 전엔 기본소득 정치의 상징인 현 당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당이 총선을 거쳐 대중정당으로 성장하자는 계획은 선거를 반드시 단독으로 치른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개인 및 세력과 함께 열린 선거연대,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총선을 기본소득운동이 함께 승리하는 무대로 만들겠다”라고 대표단이 밝힌 포부는 진심이다. 선거연대는 낮은 수준에서는 기본소득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출마하는 것부터, 높은 수준에서는 ‘기본소득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것도 있다. 국회 정치제도개혁 논의에 기본소득운동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봉쇄조항(비례의원 배출을 위한 최소득표비율)을 낮추고 의원 총수를 늘리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논의 향배에 따라 기본소득 선거연합에 유

리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당은 ‘기본소득 월 65만원’과 같이 구체적 급여액을 전면에 내걸었다. 소수당으로서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나타나 허황한 액수를 마구 던지면서 우리의 기본소득 공약이 함께 희화화돼버렸다. “허경영은 1억 준다는데 너흰 65만원이 뭐냐?” 같은 식으로. 씁쓸하지만, 기본소득을 급여액 중심으로 선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다.

기본소득당은 다음 총선에서 “얼마를 주겠다”를 넘어, 기본소득 있는 정치공동체의 청사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나는 청사진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통한 생산체제와 분배체제의 전면 혁신 그리고 선순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단지 분배정책의 하나, 현금복지의 하나일 수 없다. 나는 기본소득이 기후변화, 일자리 변화, 산업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 일 거라고 믿는다. 각각의 문제마다 대응 정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소득과 연결할 때 전체 회로에 불이 반짝 하고 들어온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해서, 기본소득이야말로 더 민주적이고 더 생태적인 정치공동체 수립의 핵심 수단이자 필수 경로임을 설득할 것이다.

기본소득 썰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본소득당은 크게 두 방향으로 활동계획을 세웠다. 첫째, 윤석열 정권에 맞선 민생투쟁과 민주주의투쟁을 통해 ‘대안야당’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겠다. 그동안 과감하고 참신한 의정활동을 벌여온 용혜인 상임대표가 이 활동을 이끌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환수’라는 급진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횡재세는 영어로 ‘윈드폴 택스(windfall tax)’다. 윈드폴, 곧 바람 불어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우연히 지나가다 주었다면 횡재한 것이다. 그 과일을 혼자 차지할 권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서민은 고통을 겪었는데 정유사는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었다. 한국 정유사 영업이익이 올 상반기에만 14조가 넘었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한도까지 인하여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 했는데, 유류세 인하분에서 가격 인하에 반영된 건 40% 정도라는 게 용혜인 의원 분석이다. 과점시장에서 정유사의 가격 결정력은 막강하기에, 정유사의 초과이익은 혁신과는 무관한 ‘폭리’에 가깝다. 용혜인 의원의 횡재세 법안은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특별 과세해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에 쓰자는 내용이다.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데 석유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 수익 달려 횡재이익을 올리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석유산업에 대한 횡재세금 부과를 선진국 정부에 권고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한다. 영국은 석유산업에 25% 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본소득당의 횡재세 법안

에 정유사들이 집단 반발하지만 여론은 법안에 꽤 우호적이다. 명분과 기획을 잘 결합하면 윤석열 정부 감세정치에 증세정치로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이 축적될수록 기본소득당의 인지도도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 논의를 혁신하고 기본소득 공론장을 확대하겠다. 특히, 사회의 진보적 의제들이 기본소득운동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보적 의제의 실현에 기본소득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다.

‘기후정의×기본소득’이 좋은 사례다. 올해 9.24 기후정의행진에 기본소득당도 적극 참가했는데, 나는 행진을 앞두고 언론에 “기후정의, 기본소득과 만나자”라는 칼럼을 기고했다(경향신문. 9.22.) 기후정의운동과 기본소득운동이 함께 가야하는 이유를 밝히고, 기후정의운동 일각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에 답하는 내용이다. 기후정의운동은 온실가스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 삼는다. ‘체제 전환’이 기후정의운동의 목표인 이유다. 기본소득운동은 지구라는 공유부의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공유부를 포획하고 사유화해온 역사이며 기후변화는 그 결과다.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의 공유부 철학과 기후정의의 문제의식이 연결된다.

기본소득이 분배 영역의 문제점만 교정할 뿐 생산 영역의 불평등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신이 시지프에게 멈출 수 없는 바위 굴리기를 명하듯 자본주의 생산권력은 우리에게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라고 강요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노동 의존을 감소시킬 수단이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생산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적 협상력을 키운다. 자본주의적 생산 외부에 비자본주의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도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더 늘어난다. 기본소득당은 ‘기후정의×기본소득’이란 제목으로 거리연설회를 하고 그 구호를 외치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기본소득과 탄소세를 결합하면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수단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보적 의제 - 기후정의, 정치개혁, 산업전환, 젠더평등 - 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히는 것은 기본소득 공론장을 확대하는 효과적 방법이다. 물론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앞서서 했다. 기본소득당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담론을 발전시키며 참신한 정치기획을 더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기관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기관지를 통해 주요 사회의제에 대한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운동의 입장을 대중에게 전파할 것이다. 기본소득당 창당 3주년인 내년 1월에 그 첫 호를 발간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소득운동 주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본소득운동의 주체’가 누

군지 규명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프리카리아트, 곧 불안정노동과 실업을 반복하는 집단 또는 계급이 기본소득운동 주체일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들을 주체화하는 경로는 여전히 잘 찾기 어렵다.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접근 방식도 시도해야 한다.

그러한 시도로, 기본소득당은 올 하반기에 ‘대학생 소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1기 소셜투어의 제목은 ‘기후위기로부터 배우는 여행’이다. 소셜투어란 청년들과 함께 사회의제 관련 현장을 방문하며 체험하고 배우자는 취지의 기획이다. 청년들은 서울 구릉마을을 방문해 기후재난 피해자들과 만나고,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 코로나 시기 늘어난 쓰레기 실태와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살핀다. 탄소세 및 탄소세 기본소득 정책을 공부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는 캠페인도 프로그램의 일부다. 20대 청년의 의미지에 대해 언론이 퍼뜨리는 왜곡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사회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권리 실현에 힘을 보태려는 청년들은 여기저기 존재한다. 이들이 참여하고 긍지를 느낄 경험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프로그램에 관해 내게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밝혀본다. ‘기본소득 농활’을 가면 어떨까? 농활은 학생 사회의 전통적인 ‘민중연대’ 활동이었는데 지금도 농촌봉사활동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고 매년 대학생 수백 명이 참가한다. ‘기본소득 농활’은 농촌봉사활동(농민연대활동)과 농민기본소득 캠페인을 연계하자는 아이디어다. 청년들이 농촌 현장을 체험하고 일손을 돕는 한편, 농민기본소득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농촌 주민의 의사를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내년 여름에 가칭 ‘한국기본소득대회’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열고자 한다. 2023년 8월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총회 및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한국기본소득대회는 지구네트워크대회로 가는 디딤돌 구실을 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개인, 지자체, 사회적 모임, 운동단체들이 서로 확인하고 기본소득운동의 힘을 모으고 힘을 집중할 과제를 정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기본소득당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역할을 찾고 실천할 생각이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기본소득당은 당명이 말하듯 기본소득 실현을 제1과업으로 정한 정당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운동이 썰물인 지금에 기본소득당도 함께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은 그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본소득당이 앞에 나서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명과 지성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데서 힘과 존재감을 과시할 작정이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싸우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작지만 단단한 개혁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를 통해 당의 인지도와 지지도도 끌어올릴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우리 정치공동체의 주요 의제들이 처한 난맥을 헤쳐가려면 기본소득과 함께 가야 한다고 증명하고 설득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공론장을 더 크게 더 뜨겁게 열고, 기본소득의 대중적 열망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한다.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들을 찾고 조직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기획할 것이다.

‘언제나 과감하게 행동하라 Memento audere semper’는 기본소득당이 탄생부터 가슴에 품은 모토다. 붙잡은 손을 놓아야 더 높은 바위를 잡고 절벽을 올라갈 수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기본소득당의 행보가 기본소득운동의 전망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